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al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97호 1판 (음력 8월 13일)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설레는 귀향길 본격적인 추석 귀향 행렬이 시작된 1일, 서울 등 기타지역에서 광주를 찾은 귀향객들로 광주송정역이 크게 붐비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 용산발-광주송정역 무궁화 열차와 KTX를 추가 투입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속도로 한산…공항은 북새통

추석 귀향 시작…서남해안 비바람 귀성길 불편

추석 연휴 이틀째를 맞은 1일 광주송정역과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에는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

고속도로는 아직 차량이 많지 않아 소통이 원활하지만,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에는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려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궂은 날씨 때문에 바닷길이 끊겨 귀성객이 불편을 겪었다. 전남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장에는 귀성을 미룬 관광객 발길이 이어졌다.

1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출발 기준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2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 3시50분가량 소요되고 있다.

같은 시간 광주에서 서울은 3시간, 목포에서 서울은 3시간30분이 걸리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는 장기간 연휴로 인해 차량이 분산되면서 평소 주말과 같은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휴 귀성객 수송을 위해 금호고속은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에 고속노선 3731회, 직행노선 1054회씩 각각 증차하면서 많은 귀성객들이 몰리고 있다.

광주공항은 아시아나가 10월1일 김포 출발, 광주 도착 여객기 1편을 증편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서울 용산발-광주송정역 무궁화 1편과, KTX 8량을 추가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일부 뱃길이 통제돼 귀성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기상청은 1일 오후 2시 전남 신안군 흑산도·홍도에 강풍경보와 호우주의보를 동시에 발효했다.

신안 일부 섬지역에 초속 13.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등 서해남부 앞바다에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

서해남부에 강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목포에서 홍도, 가거도를 거치는 쾌속선 1개 항로 3척, 증도~자은, 영광 향화~낙월 등 총 3개 항로 5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기상청은 "2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천터미널·송정역 귀향인사…경로당·전통시장 바닥민심 훑기

민주-국민의당 추석 호남 민심잡기 총력전

지방선거 표심 다지기 올인

정의당은 시·도당 연석회의

역대 최장기 연휴가 낀 추석명절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민심 잡기에 '올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나선다. 특히 올 추석 연휴가 역대 최장인 만큼 이번에 형성된 바닥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당은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인 30일 오전 광천터미널과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귀향 인사를 했다. 이형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당직자들은 이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등 민생 입법의 추진 방안을 알리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개혁 입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한 홍보에 주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장현 광주시장도 귀향 인사에 동참해 문재인 정부의 친 호남 정책이 광주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홍보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같은날 순천 웃시장과 여수 교동·서 시장 등 재래시장 3곳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며 바닥 민심을 다졌다.

이개호 도당위원장과 지방의원 등 당직자 30여명이 참석해 추석 맞이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과 함께 '호남 SOC예산 정책홍보물' 을 비롯한 민주당 정책홍보물 등을 배포하며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2일 광주 광천터미널 광장과 광주역에서 시민들에게 귀향인사를 시작으로, 지난 5·9 장미 대선 이후 추락한 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별로 민심 탐방에 나서며 호남 민심 되찾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광주 북구을)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추석 연휴기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와 대형 유통업체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고, 관내 지구대와 소방서 등을 들러 근무 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경로당과 재래시장을 돌며 지역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히고 국민의당의 역할과 정책 등을 소개하며 바닥 민심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손금주(나주·화순)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일찌감치 지역에 내려와 전통시장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들은 뒤 지역 체육대회, 경로당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당도 지난 29일 광주에서 중앙당 상무위원회와 호남 시·도당 연석회의를 갖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열린 연석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광주에서부터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며 "촛불혁명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갈아치워 주실 것을 광주시민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당 지도부와 함께 호남 최대 전통시장인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을 격려하고,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정강·정책을 알리며 귀향객을 맞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북한과 직접대화 채널 열어뒀다"

틸러슨 美국무 국면전환 가능성 시사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열어뒀다며 국면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1일 지적했다.

북한이 아직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데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양보할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이미 공언했다.

또 미국과 북한이 '로켓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 짖는 소리(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역시 물러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올해 33살인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핵 보유력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시기에는 도발을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핵 능력을 체제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에 해당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정치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에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 카드를 내민 만큼, 미국이 북한과 직접 접촉을 한다는 소식은 아베 반대파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열 틈새를 찾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NYT는 내년 봄까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예정돼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 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북한에 제시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 동결 대가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을 제안한 바 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하긴 했지만, 규모에 관해서라는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공모

2017년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실시하는 『ONE-STOP창업지원교육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9월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1. 교육과정: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
2. 모집인원: 총 210명 (창업지원교육 110명, 창업컨설팅지원 100명)
3. 신청자격:
▶수 · 해양계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수산업종사자 또는 경영자
▶양식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4.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부(접수)기간 : 2017. 9. 28 ~ 10. 17(3주)
※ 10. 17(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신청서 교부 :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신청서 접수 :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 경남센터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201호) E-mail : pmj053@fipa.or.kr
• 전남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E-mail : jhwon2002kr@naver.com
▶교육생선발 : 2017. 10. 18 ~ 20(개별통지)
5. 제출서류:
▶교육 신청서(사진 3×4cm 부착) 1부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6. 교육생 선발: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별 통지
7. 교육과정 및 일정:
▶교육과정 : 창업실무(이론), 심화교육, 현장실습, 창업컨설팅지원
• 대상품종(9종) : 넙치, 뱀장어, 관상어, 김, 전복, 능성어, 해삼, 흰다리새우, 큰징거미새우
▶교육기간 : 품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실무(이론) / 심화교육 : 각 2주 / 32시간 씩
• 현장실습 : 2주 / 10일(토, 일요일 제외)
• 창업컨설팅 지원 : 1~2회(변경될 수 있음)
▶교육장소
• 창업실무, 심화교육 : 경상대, 한서대, 조선대
• 현장실습 : 연구기관, 선진양식장 등
• 창업컨설팅 지원 :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품종에 따라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교육기관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8. 교육비: ▶국비지원
※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음
9.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T.055)642-5762, 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062)220-0555